

# 문화전당서 만나는 2만5000km 유라시아 문화탐험

‘유라시아, 그 미래와의 만남’ 전 여는 김현국 세계탐험문화연구소장



김현국씨가 시베리아 횡단 여정이 그려진 모터바이크를 가리키며 웃고 있다.

지난 1996년,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28살 청년 김현국은 국산 125cc 모터바이크를 배에 싣고 러시아로 떠났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8개월간 1만4000km를 달려 모스크바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포장과 비포장이 섞인, 자는 동안 호랑이, 곰, 늑대 등 맹수 습격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이었다. 러시아 당국은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다는 이유로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그는 세계 최초로 모터바이크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18년 후(2014년), 46살 장년이 된 그는 다시 러시아로 향했다. 부산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왕복 2만5000km 유라시아 대륙을 내달렸다. 2010년 러시아 횡단도로가 만들어지며 부산부터 영국 아일랜드를 잇는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이하 AH6)이 완성되자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다. AH6를 이용한 물류 운송이 비행기·배·기차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22일~4월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류협력센터(구 도청 별관)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그 미래와의 만남’ 전을 앞둔 김현국(48) 세계탐험문화연구소장을 만나 탐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군대 복무 시절 당시 노태우 정권이 해외여행 자유화를 시행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다, 지구 끝까지 가버리자’고 결심했죠. 졸업하자마자 ‘지구대동맥이동시리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해외 여행 준비를 했어요.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 직성이 풀렸죠.”

김씨 큰어머니는 ‘1인 창무국’ 선구자인 고(故) 공옥진 여사이고 큰아버지는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김준희 선생이다. 어렸을 적부터 백부에게 시베리아와 만주 이야기를 듣고 자란 그에게 러



김현국씨가 탐험을 연구·준비한 ‘탐험가의 방’. ‘유라시아 그 미래와의 만남’ 전시에서 재현된다.

아는 쪽 가봐야할 땅이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운 좋게 복권이 당첨(당첨금 100만원)되며 갈 수 있었던 1차 때와는 달리 1999년 기획했던 두번째 시리즈 ‘N.실크로드 대장정’은 미국 911사태로 취소돼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간신히 기획한 2014년 세번째 시리즈(2차 원정) 때는 세월호가 터진 것이다. 자금 등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서라도 시베리아에 가려고 했었다. 주변 도움으로 오토바이 1대와 단돈 1000달러(약 115만원)만 들고간 2차 원정은 그렇게 성공했다.

이번 전시는 사진,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총 3만 9000km에 이르는 여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소주제 ‘탐험의 기록’에서는 두번째 걸친 대장정에서 본 풍경, 만난 사람들, 먹은 음식 등을 찍은 사진을 선보인다.



김현국씨가 여행 도중 만난 외국인 바이커들.

또 특별한 전시공간도 조성한다. ‘탐험가의 방’은 전남대학교 산업협력관에 위치한 ‘세계탐험문화연구소’ 모습을 재현했다. 밖에 걸린 유라시

아 지도, 영감을 준 도서·영화DVD·음악CD, 직접 그린 그림, 낙서, 소장품 등이 함께 전시돼 탐험가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에마 ‘구스’도 선보인다. ‘딱딱딱’ 배기음이 거위 소리와 닮은 온·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650cc 대형 모터바이크다. 음향장비를 통해 관람객들도 엔진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사실 전 모터바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잘 타지도 못했어. 원래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호프처럼 말을 타려고 했어. 여건상 말과 가장 비슷한 수단으로 모터바이크를 선택했죠. 1차 원정 때 바이크는 이름이나마 ‘포니’(작은 말)라고 지었어.”

관람은 22일 오전부터 가능하다. 이날 오후 7시 개막식에서는 가수 김원중이 김씨에게서 영감을 얻어 만든 노래 ‘나는 바이크타고 시베리아에 간다’를 부르고 계현순 전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 장구춤을 공연한다. 4월24일 오후 3시에는 김씨가 탐험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또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순회 전시에 이어 책도 낼 계획이고 내년에는 다시 탐험을 떠날 예정이다.

이번에 기획한 탐험은 혼자서 아니다. 지리·인류·음악·미술·문학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유라시아 원정대’(지구대동맥이동시리즈)를 구성해 트레일러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계획이다. 이 탐험에서 나온 다양한 문화콘텐츠 자료들은 문화전당 등 필요한 곳에 제공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수출중심 국가였지만 앞으로는 문화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일부에서는 지역 출신이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지역, 국가, 나이 구분이 의미없잖아요.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문의 010-4446-198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바이크 1대로 러시아 대륙 두번 횡단  
사진·영상·자료... ‘탐험가의 방’ 등 전시  
22일~4월 24일 문화교류협력센터  
“전문가 모아 유라시아 3차 원정 계획 중”

## 이매리 작가 중국 전시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리뷰...작가 13명 참여  
12월까지 충청 시작 시안·상하이 3회 전시

지역 출신 이매리 작가가 중국 순회전시에서 나선다. 충청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시안, 상하이 등에서 3차례 전시를 연다. “산수 정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5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리뷰전이다. 작가 13명이 참여해 회화, 사진, 영상, 설치 작품을 ‘생성-과거의 형상’, ‘진화-현재의 형상’, ‘산수 사화-미래의 형상’ 등 세가지 소주제로 나눠 선보인다.

참여 작가 중 유일한 한국 출신 이 작가는 영상설치 작품 ‘Poetry Delivery’(25분 분량)를 출품했다. 이 작품은 2채널 비디오와 스피커 50개를 이용해 문명과 산업화, 도시 개발이라는 욕망을 드러낸다. 한쪽 모니터에서는 작가의 거주지이자 태생지인

강진에서 출발해 광주, 판문점, 임진각을 거쳐 서울까지 고속도로 질주하는 도로를 보여준다. 다른 영상은 작가가 임의로 선정한 50개국 사람들이 시를 낭송하는 영상이다. 자연을 소재로 한 산수화와는 뉘 수 없는 시(詩)를 통해 난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동양 산수 정신을 피폐하고 있는 정신의 치유제로 본다. 목포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 작



‘Poetry Delivery’

가는 이이남 작가와 함께 지역 최초로 2015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했다. 국내 뿐 아니라 뉴욕, 베이징, 그리스 등 전세계를 상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9070-687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대 박물관 문화전문도서 시리즈 제2권 발간

사람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는 존재다. 생은 사랑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주고, 나누면서 산다.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사랑이다.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은 변함없는 삶의 진리다.

그림을 매개로 사랑의 비밀을 탐색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박물관이 문화전문도서 시리즈 제2권 ‘동서양 그림에서 사랑의 비밀을 읽다’를 간행했다. 책은 박물관 문화강좌 자료집을 토대로 엮은 전문도서 시리즈 두 번째 결실이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는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랑뿐 아니라 화가가 붓 끝에 담고자 했던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표현기법 등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전문도서 발간에는 전남대학교 정금희(미술학과), 최혜영(사학과), 김홍숙(독일언어문화) 교

수와 명지대 이태훈(미술사학과) 교수, 손철주 학교재 편집주간, 노성두·박계리 미술사학자, 유경희 미술평론가 등이 참여했다.

표인주 전남대학교 박물관장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이 역사·문화적 배경과 어울려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개강하는 2016학년도 1학기 박물관 문화강좌는 오는 6월8일까지 12주 동안 ‘사랑의 콜라주, Story...’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s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 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